

“20년 화업 정리 누군가에 작은 위안 되길”



수채화가 한부철씨 작품 인생 20주년 기념 개인전

“예전에는 제 작품을 보고 남들이 좋다고 느끼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다보니 제 스스로 작품에서 위안과 평온을 얻고 있죠. 이번 전시는 그림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 만난 수채화가 한부철(46)씨는 말총머리를 짙은 동여 맨 모습에서 예술가 풍모가 느껴지는 첫인상이었다.

그는 광주시 남구 양림미술관에서 11일까지 ‘바라보다’를 주제로 초대전을 갖는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전업작가 길을 걷은 지 20주년을 맞아 예술인생을 되돌아 보는 자리다. 또 작업을 총망라한 개인 도록 ‘바라

11일까지 양림미술관 40점 선배...도록도 제작

보다’를 제작해 지난 여정을 정리했다. 이번 전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해 작품 약 40점을 선보인다. ‘고향이아기’ 연작부터 ‘사유하다’, ‘바라보다’, 최근작 ‘담다’ 시리즈까지다.

진도 시골마을 출신 한 작가는 도시생활을 하며 느꼈던 문화적 충격을 치유하기 위해 어머니와 고향을 소재로 작업을 시작했다. ‘고향이아기’는 여느 그림처럼 먼 거리에서 본 모습이 아닌 일부분을 집중해서 그리며 본인이 살았던 고향마을

로 관람객을 초대한다.

‘사유하다’ 시리즈에서는 삶을 성찰한다.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고 삶과 죽음을 생각한 작가는 ‘꿈’ 연작을 작업했다. 작품에 낙엽과 여백을 가득 담아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듯한 정중동(靜中動) 분위기를 연출했다.

‘바라보다’ 시리즈에는 드넓은 갯벌이나 바다 앞에서 있는 국화 한줄기가 주로 등장한다. 그림자를 통해 화면 밖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작가 자신을 작품에 그려 넣었다. 직접적으로 작품에 개입하며 작업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

‘담다’ 시리즈는 한부철 작가 예술세계 결정체다. 한씨는 지난 2009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결혼을 하며 번민과 고통, 기쁨과 희망을 동시에 느낀다. 마음 치유가 필요했던 작가는 떨어지는 꽃잎, 장독, 북(福)그릇 등을 소재로 ‘담다’ 연작을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위안을 준다. 어머니에 대한 애뜻함, 그리움, 사랑, 소중함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희망을 작품에 녹여내었다.

한 작가는 “어린 시절 마냥 좋아 시작했던 그림이 지금은 삶의 전부가 돼버린 것 같다”며 “관람객들도 이번 전시를 통해 무엇을 보고 느끼고 생각할 것인지 되새기고 힐링을 얻어갈 바란다”고 말했다.

한씨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광주시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하고 개인전 34회, 단체전 300여회를 가졌다. 현재 한국수채화협회, 아트그룹 ‘라이브’ 회원, 광주미술협회 수채화분과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675-700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어머니’

핵의학자가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김천기 하버드대 교수 특강...6일 전남대 의과대학

‘핵의학자가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핵의학 권위자인 김천기(사진) 교수가 클래식 특강을 연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핵의학과(과장 민정준 교수) 초청으로 광주를 찾는 그는 오는 6일 오후 5시 전남대 의과대학 박물관 1층 문석홀에서 ‘아름다운 음악이야기: 수, 화성, 피타고라스, 바흐의 평균율 그리고 구스타프 말러’를 주제로 강연한다. 김교수는 이번 특강에서 수학과 음·화음의 오묘한 관계, 음악을 아름답게 만드는 불협화음, 음악을 아름답게 느끼게 하는 객관화된 요

소 등에 관해 들려준다.

김교수는 틈틈이 작곡활동을 펼치고, 수십년간 우정을 쌓고 있는 가수 전인권의 콘서트 무대에 올라 공연을 갖기도 했다.

김교수는 현재 하버드 의대 핵의학 담당교수로, 하버드 의대 부속 브리검앤드위병원의 핵의학과 교수이자 임상주임으로 재직중이다. 한양대 의대 출신으로, 뉴욕 마운트 시나이와 펜실베이니아 등 미국 유명대학과 병원에 재직하며 핵의학과 분자영상분야 발전에 기여해왔다. 문의 061-379-7841. /김미은기자 mekim@



‘5인 5색’ 단체전

LH휴랑갤러리 30일까지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작가 5명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저마다 시각으로 캔버스에 옮긴 작품을 전시한다.

LH휴랑갤러리가 30일까지 단체전 ‘5’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고희자·박해경·배삼수·장문갑·정병길 작가가 참여해 정물, 풍경, 반구상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현재 황토회 회장과 송원대 교수로 재직 중인 고희자 작가는 ‘접시꽃’, ‘나비와 맨드라미’ 등 꽃을 소재로 그린 작품을 출품했다. 투명한 수채기법으로 그린 ‘접시꽃’ 작품은 검푸른 잎으로 둘러싸인 분홍색 접시꽃이 시선을 붙잡는다. ‘나비와 맨드라미’ 또한 흐릿한 배경 속 나비의 선명한 푸른색 날개와 붉은 맨드라미가 인상적이다.

박해경 작가는 ‘Dreaming’ 시리즈를 통해 꿈 속 세상을 선사한다. 빨강, 노랑, 파랑 등 다양한 색채 꽃잎으로 캔버스를 가득 채웠다.

배삼수 작가가 작업한 ‘고향길 가는 길’, ‘망초길따라’는 향수를 자극하는 작품이다. 황토길을 따라 서 있는 흰빛은 나무를 눈부신 햇살이 가득 비추며 외로움보다는 따뜻함이 먼저 느껴진다.

그밖에 장문갑 작가는 ‘Rain road’ 시리즈를, 정병길 작가는 ‘석류의 밀어’를 출품해 일상 속 아름다움을 전한다. 문의 062-360-399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고희자 작 ‘접시꽃’

‘길 위의 풍경들’

강남구 작가 초대전

재복미술관 내달 4일까지

일상 속 소재로 소소한 행복을 작품에 담고 있는 강남구 작가가 ‘길 위의 풍경들’을 주제로 5일부터 2017년 1월4일까지 재복미술관(수원재활요양병원 1층)에서 초대전을 연다.

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바다, 하늘, 갯벌, 섬진강 등 풍경 작품과 매화, 백일홍, 석류 등 탐스런 꽃과 열매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은 세밀한 묘사가 특징이다. 공간과 장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빛과 대상을 밀도 깊은 분석을 통해 재현해내고 있다. 작품 ‘풍경’ 시리즈에서는 매화, 바위



‘석류’

등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소재들은 또렷하게 표현한 반면 배경은 몽환적으로 처리하며 공간감을 강조한다.

또 ‘석류’ 연작은 햇볕을 가득 머금은 석류 알을 투명하게 표현하며 각박한 현대사회 속에서 잠시나마 시각적 휴식을 건넨다. 큼직한 꽃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해바라기’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자연을 존중하지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강씨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개인전 29회, 단체·초대전 700여회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광주시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한국미협, 한국전업작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958-1170~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사진전시관·서울 광주·전남갤러리 대관

내달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립미술관이 광주시립사진전시관과 G&J 광주·전남갤러리를 대관한다.

광주문화예술회관 별관 1층에 자리한 사진전시관은 전시 공간 515㎡(약 156평)로, 지난 10월 문을 열었다. 대관을 원하는 광주 지역 사진단체·개인들은 2017년 1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대관료는 14일 기준으로 152만8520원이며, 대관일정은 2017년 2월1일부터 2018년 1월2일까지이다.

서울 인사동에 지난 10월 개관한 광주·전남갤러리는 전시 공간 297㎡(약 90평)

규모로 단체전, 개인전 등 다양한 전시가 가능하다.

대관료는 광주·전남 출신일 경우 1주일에 100만원이고 다른 지역 작가에게도 인근 사설 갤러리 대관료(1주일 평균 300만

원)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

대관일정은 2017년 1월2일~12월 31일 로 오는 19일부터 2017년 1월13일까지 접수받는다. 문의 062-613-713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아프리카 순나조각
양근로전시회
- 500여점 전시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DAEMYUNG RESORT

GRAND OPENING 2016. 6. 22

대명리조트 신규분양 회원모집

13번째 리조트! 쉼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신도리니품의 하얀 쉼비치 호텔&리조트 삼척과 파란 동해바다~
황금빛 동해같은 전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척해수욕장에서 바라본 쉼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709실)

● 기동 (신도리니 품) 특별혜택 기간: 2년 / 분양일 실시일 이후 시 1억 7천만 원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문의는 고객센터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할 제사를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 EQUESTRIAN (승마클럽) 소노벨리체 승마클럽	● SKI (스키) 오산월드 및 아쿠아월드
● YACHT (요트) 가미 미러나 베이	● OCEAN WORLD (해양) 대명리조트 호텔
● GOLF (골프) 비발디파크 (대중골프장) 리프트 및 4가지 유희시설	● RESORT (리조트) 기동 신규회원 특별혜택

주말 20%, 주중 40% 주말 회원대우, 주중 50% 주말 50%, 주중 무료 무료 주일, 성수기 주중 50% 주일, 성수기 주중 무료 객실 직원 요금의 50%

분양문의(24시간 상담 가능)
062)714-2000

문의: 1000-900-697807 국민은행 614701-04-002581 신한은행 295-06-061967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화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